

'18번'이라하여 특히 좋아하는 노래는 없지만, 생각할 때 마다 웃음이 나오고, 옛날이 그리워지고, 친구가 보고 싶고, 또 술을 한 잔 먹고 싶어 하는 노래가 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노래 하나를 소개하려고 한다.

나에게는 유년 시절부터 대학 시절까지 줄곧 함께 자라온 친구들이 세 명 있었다. 어린 시절 소를 몰고 산에 올라가 소들을 이리저리 흠어 놓고는 도랑에서 가재를 잡을 때부터 대

그리운 친구들을 부르게 하는 '빈대떡 신사'

김성호

진로그룹 홍보팀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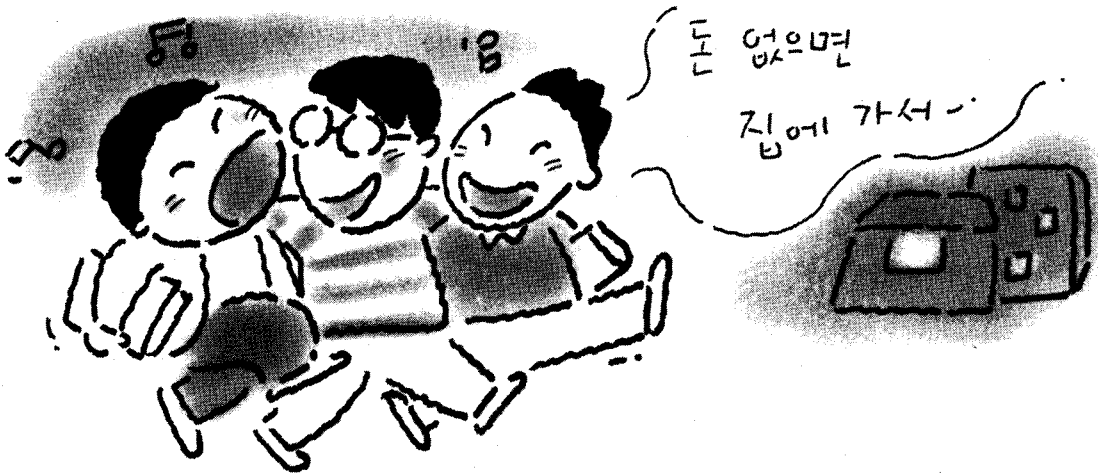
마지막 친구가 나오자마자 모두가 죽어라 줄행랑을 쳤다. 한참을 뛰다가 한숨을 돌린 후 서로 크게 웃었다. 마지막 술자리의 쾌거라고나 할까? 하지만 말이 좋아 그렇지 신세야 '빈대떡 신사'와 똑 같지 않은가?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네가 떠나가라 큰소리로 '빈대떡 신사'를 합창했다.

학 시절 술을 먹고 이 동네 저 동네 활보하고 다닐 때까지 우리는 한시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었다.

수박서리를 하다 한 명이라도 잡히게 되면 나머지 친구들 또한 주인에게 함께 혼나기를 청했다. 다른 동네 아이들과 눈싸움이라도 할라치면 반드시 넷이 모여 들은 눈덩이를 뭉쳤고, 들은 그 눈덩이들을 던졌다.

가끔씩 서로 싸우고 며칠씩 의절(義絶)하고 지낼 때도 있었지만, 그 때마다 항상 나머지 친구들의 도움으로 다시금 예전의 다정한 사이로 돌아가곤 했다.

우리들은 공교롭게도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에도 같은 학교가 아니면 인근에 위치한 학교로 가게 되었다. 그 때마다 우리들은 뿔뿔이 기뻐했고, 그러는 동안 우리의 우정은 깊어만 갔다. 대학도 들은 같은 학교로 갔고, 들은 다른 학교로 진학했지만 그 거리는 채 30분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다.



대학 시절, 우리들은 술을 무척이나 즐겼다. 그래서 내가 진로에 몸 담게 됐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술을 마시며 인생을 논하고, 사랑을 얘기했으며, 나라의 장래까지 걱정하는 멋(?)도 부러보았다.

이 술집 저 술집 전전하면서 학교 인근의 대포집이란 대포집은 모조리 단골로 만들어 버렸다. 농담삼아 넷이 모여 양조회사를 차리는 것이 어떨겠느냐는 얘기까지 나눌 정도였다.

술을 좋아했던 우리, 나라의 장래까지 걱정했던 의롭던 술자리, 돈과 명예를 우습게 여겼던 젊음의 호방함, 여기까지는 좋았지만 잦은 술자리 때문에 학비가 거덜나게 된 적이 한 번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술자리 약속은 하지 말자는 결단을 내리고, 의지를 다지는 마지막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모두들 술에 취해 서로를 붙들고 못내 아쉬워 하는 눈물까지 흘렸다.

그런데, 아뵘사! 문제가 생겼다. 우리들 중 누구도 술값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었다. 당황했던 우리. 하지만 이내 생각을 가다듬고 객기를 부리기로 작정했다.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한 사람씩 빠져 나오기로 한 것이다.

마지막 친구가 나오자 마자 모두들 죽어라

줄행랑을 쳤다. 한참을 뛰다가 한숨을 돌린 후 서로 크게 웃었다. 마지막 술자리의 쾌거라고나 할까? 하지만 말이 좋아 그렇지 신세야 '빈대떡 신사'와 똑 같지 않은가?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네가 떠나가라 큰소리로 '빈대떡 신사'를 합창했다.

이후 친구들과 만나면 빠지지 않고 그 때 얘기를 하고 그 노래를 부른다. 한 달 경 뒤에 '양심의 소리'에 순응해 술값을 갚았던 당연한 행위를 마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자화자찬 하면서 말이다.

자랑할 만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가슴을 따뜻하게 해 주는 그 시절, 그 사건, 그 노래를 생각 생각하면 지금도 미소짓게 된다.

그 노래를 홀로 흥얼거리다 보면 바쁜 일상에 쫓기다가도 이내 그 시절로 돌아가곤 한다. 그리고 친구들이 더욱 그리워지고... 요즘처럼 일상에 매몰되어 정신없이 보내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면 아찔해질 때가 가끔 있다. 그럴수록 친구들과 보낸 그 시절이 더욱 그리워진다.

그리운 친구들, 그리고 그 노래.

'빈대떡 신사'라도 크게 부르면 꿈 속에서나마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런지... ■